『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17권 1호(2011년 6월) 69-93

두 여성 인물의 자살의 공통적 의미: 시니코 부인과 시빌 베인

이 영 심

육체적 소멸, 즉 죽음이라는 인간의 필연적 한계의 극복을 위해 셰익스피어(Shakespeare)는 소넷 XVIII에서는 예술(시)을 통한 육체적 소멸의 극복을[1] 이야기했고, 반대로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을 통해서는 오히려 삶을 부정하는 '죽음'을 통한 영원한 사랑의 쟁취를 부각시켰다. 후자는 죽음이 지닌 아이러니와 힘을 드러내는데,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죽은 사람들」("The Dead") 역시 죽음이 내포하는 역설적인 강력함을 보여준다. 즉, 그레타(Gretta)에게 더 파장을 주는 인물은, 지금 그녀 곁에 '살아 있는' 남편 가브리엘(Gabriel)이 아니라,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남아 있는 '죽은' 마이클(Michael)이다.[2] 죽음이 지닌 이러한 강력함을 더욱 배가시키는 장치는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죽음의

1) 그러나 그대의 영원한 여름은 희미해지지 않으리라.
또한 그대는 지닌 그 아름다움을 또한 잃지 않으리라.
죽음 역시 그대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자랑하지 못하리라,
영원한 시 구절 속에서 그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더 성장할 때.
(Shakespeare Sonnet 18. 9-12)

2) 조이스는 「죽은 사람들」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발포니 장면 그림을 삽입시킴으로써 (*Dubliners* 118) 이것을 이미 텍스트의 배경으로 배치하고 있다.

방식인 '자살'이며, 그 이유는 자살하는 주체는 어떤 가치를 지켜 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포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자살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자살하는 주체의 절망적인 사회적 상황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자살은 그 인물이 속한 사회 구조의 모순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서, 두 여성 인물들인 시니코 부인과 시빌 베인의 자살을 의미를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임스 조이스의 「한 가지 가슴 아픈 사건」("A Painful Case")의 시니코 부인(Mrs. Sinico)과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The Picture of Dorian Gray)*의 시빌 베인(Sybil Vane)은 남성 인물로부터 일방적으로 관계 단절을 통보 받고서, 다소의 시차는 있지만 둘 다 죽음을 선택하는 공통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3] 비록 이 과정에서 그녀들의 죽음이 표면적으로는 단순 사고사로 처리되지만, 사실 그녀들의 죽음은 단순 사고사가 아닌 자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을 자살로 몰아간 일차적 책임은 상대 남성인 더피(Mr. Duffy)나 도리언 그레이(Dorian Gray)에게 돌려진다. 이들 남성 인물들은 거의 나르시시즘에 가까울 정도의 자기중심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로 인해서 이들과 관계를 맺는 여성인물인 시니코 부인과 시빌 베인은 이들과 동등한 남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단지 상대 남성 인물의 각기 다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수동적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물론 더피와 도리언 그레이는 각각 시니코 부인과 시빌 베인에게 그녀들의 삶에 결핍되어 있던 중요한 요소들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짧은 동안이기는 하지만 그녀들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 결핍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성향은 그녀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에, 그녀들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함으로써 종국에는 그녀들을 각각 자살로 내모는 상반된 역할을 한다. 남성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은 단지 이들의 특수성에게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적으로 편재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이들 여성 인물들은 자신들의 삶을 부정하는 극단적인 방식인 자살

3) 시빌 베인은 도리언에게서 이별 통고를 받은 그날 저녁에 자살을 시도하고, 시니코 부인은 더피와 헤어진 지 4년 후에 자살을 시도한다.

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의미가 재평가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삼류 배우에 지나지 않았던 시빌 베일은 자신이 무대 위에서 연기했던 '줄리엣'처럼, 죽음을 통해서 도리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의 순결성과 영원성을 획득한다. 시니코 부인 역시 살아 있었을 때는 더피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표출한 것 때문에 그로부터 일방적인 관계단절을 경험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비로소 그에게 자신의 의미를 새로운 부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더피와 도리언 그레이가 각각 시니코 부인과 시빌 베인의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과 그녀들의 죽음 이후의 그들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변화의 정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시니코부인과 시빌 베일의 자살이라는 공통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더피와 도리언 그레이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자기중심적 성향과 그로 인한 여성 인물을 대상화, 그 결과로 발생하는 그녀들의 죽음(자살), 그리고 그 죽음이 남성 인물들에게 미치는 공통적인 측면과 그 차이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남성 인물에 의해 대상화된 여성 인물: '화자와 청자' 그리고 '배우와 관객'

시니코 부인과 더피의 관계 그리고 시빌 베인과 도리언 그레이의 관계에 나타나는 일차적인 문제는 이들이 동등한 남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남성 인물의 입장에서 여성 인물이 대상화된다는 점이다. 즉, 남성인물은 여성인물을 자신들과 동등한 대상으로 그녀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나 빈 부분을 채워줄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먼저 더피와 시니코 부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어머니와 같은 관심으로 들어주는 한 사람의 청자로 시니코부인을 전락시킨다.

> 그녀는 모든 것들을 들었다. . . . 거의 모성적인 염려로 그녀는 그로 하여금 그의 본성을 완전하게 표출하도록 촉구했다: 그녀는 그의 피고해자가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 . . 을 말했다. . . . 그녀와 함께하는 것은 마치 이국 식물에게 따뜻한 토양과도 같은 느낌이었다. . . . 그는 그녀의 눈 속에서 자신이 천상의 상

태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Dubliners* 110-11)

위에서 보는 것처럼, 주로 더피는 '말하고' 시니코 부인은 '듣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피는 "모성적인 염려"로 "이국적인 식물"에게 있어 "따뜻한 토양"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시니코 부인에게서 정서적인 위안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억제해왔던 "자신의 본성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은 상태에 도달한다. 그런데, 위에서 보는 것처럼 화자인 더피가 청자인 시니코부인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을 고해 성사에 가깝도록 배출하면서 거의 완벽한 만족감("천상의 상태")에 도달하고 있는 점은 드러나지만, 청자인 그녀의 감정 상태는 드러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시니코 부인이 말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는 거의 등장하지도 않는다. 더피는 자신이 평소에 품었던 생각들을 아무런 억압적 기제 없이 배출하는 데서 오는 정서적 해방감은 누리고 있지만, 시니코 부인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서술의 중심이 더피에게 맞춰짐으로써 이 두 사람관계의 일방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즉, 비록 3인칭 객관적 관찰자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서술의 초점은 철저하게 남성인물인 더피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두 인물간의 관계 역시 더피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불균형성을 드러낸다. 서술의 중심에서 소외된 시니코부인의 감정이나 생각은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시니코 부인과 더피와의 관계는 '화자'와 '청자' 혹은 '고해자'와 '고해를 받아주는 사람'의 관계로 고정된다. 결국 이들의 관계는 상호 동등성이 배제되고 남성 인물인 더피 중심의 일방적인 관계가 된다. 이것은 『더블린 사람들』에서 유년기를 다루고 있는 "애러비"(Araby)에 등장하는 소년과 그의 낭만적 사랑의 대상인 망간의 누이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왜곡된 남녀 관계가, 성인기의 단계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애러비"에서 망간의 누이의 감정이나 생각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녀의 감정만이 드러난 것처럼, 여성들은 "남성들의 시선에 의해서 대상화되거나 신비화"(Conboy 406) 되는 존재로서 한정된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더블린 사람들』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죽은 사람들」의 그레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당대의 남성 중심으로 편재된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의해서 수동화되거나 대상화되어 있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시의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담론과 행위의 주체로서의 능동적인 위치를 부여받고 있지 못한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다.[4)]

한편으로 도리언과 시빌베인의 관계는 '화자'와 '청자'관계보다 더욱 더 일방적인 관계를 드러내는데, 그것은 그들의 관계의 성격이 '배우'와 그 배우의 연기를 감상하고 향유하는 특권적 '관객'의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시빌 베인을 연기자 그녀 자신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텍스트들의 집합체로 축소시켜 버리는"(Felski 1102) 도리언은, 그녀가 연기하는 로잘린드(Rosalind)나 이모겐(Imogen) 그리고 줄리엣(Juliet)과 같은 여주인공들과 그녀를 동일시하는 방식으로만 그녀를 인식한다.

> "그녀는 로잘린드를 연기하고 있었죠" . . .
> "오늘밤 그녀는 이모겐(Imogen)을 연기할 거예요". . . .
> "그리고 내일 밤엔 그녀는 줄리엣이 될 거예요.."
> "언제 그녀는 시빌 베인이 되는 건가?"
> "결코 시빌 베일이 되지 못해요." (*PDG* 56-57)

도리언에게 드라마속의 여주인공들이 아닌 실제 '시빌 베인'으로서의 시빌 베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작 그녀가 무대 위의 여배우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의 사랑을 위해서 '시빌 베인'으로 사는 쪽을 선택하는 순간에, 도리언은 그녀를 거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한다. 이러한 도리언의 모습 역시 "애러비"의 소년이 망간의 누나에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거의 없으면서도, 그녀에 대한 낭만적 환상으로 가득차서 그녀를 이상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소년은 정작, "그녀와 일상적인 말 이외에는 몇 마디 나누어보지 못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녀의 이름은 그의 모든 피를 끌어 모으는 "소환장"같은 역할을 하며(*D* 30), "낭만적인 것과 가장 거리가 먼 장소에서도" 그녀의 이미지가 떠오르며(ibid 31), 적들을 통과하여 성배를 지키는 로맨스의 기사로 자신을 상상하게 만든다. 그러나, 망간의 누나에 대한 그의 숭배와 이상화는 실제의 그녀의

4) 이렇게 여성인물들의 목소리가 차단된 상황은, 당시의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담론 권력 속에서 소외된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주지하다시피, 조이스는 『율리시스』의 마지막 장을, 극단적인 내적 독백 장치를 통해 몰리 블룸(Molly Bloom)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완전한 상태를 허용함으로써 조이스의 이전 텍스트들에서 여성인물들이 발언권이 제약받았던 상황을 전복시키고 있다.

모습과는 아무 상관없이 소년의 주관적 의식이 반영된 이미지에 불과하다.

이와 유사하게, 도리언이 시빌 베인을 그녀 자신이 아닌 연극 속의 여 주인공들과 동일시하는 것은 두 사람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리언은 드라마의 여주인공들의 모습 안에, 다시 말하면,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 낸 "이상화된 여성상"에 시빌 베인을 가두고 있는 것이다. 여성을 이상화된 하나의 대상으로서만 인식하는 것은 비키 마페이(Vicki Mahaffey)가 지적하듯이 남성의 "왜곡된 욕망"(Mahaffey 193)인 것이며, 이것은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측면은 도리언 그레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특수한 측면－그의 의식이 현실이 아닌 철저하게 추상화된 미나 쾌락의 세계에 경도되어 있는 양상－에서 일정정도 기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여성을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낸 이상화된 여성상에 실제의 여성들을 가두고자 했던 당시 남성들의 여성관의 문제적인 측면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는 살아 있는, 그래서 변화하는 자기 자신을 초상화 속의 젊고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 속에 가두듯이, 현실 속의 살아 있는 시빌 베인을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의 입장에서 자신의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무대 위의 이상화된 여주인공의 모습 속에 가둔다. "그녀는 언제 시빌 베인이 되는 것이냐"라는 헨리의 질문에, 그녀가 시빌 베인이 되는 때는 "결코 없다"라고 말하는 도리언의 대답은 이러한 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처럼, '관객'과 '배우'라는 관계는 두 사람의 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강력한 장애물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관계가 상호 소통적인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한쪽(관객)에 의한 한쪽(여자주인공)의 향유라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 속의 살아 있는 여성 인물을 "연극 속의 여성 인물"이라는 한정된 틀로 가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더피와 시니코 부인의 관계 그리고 시빌 베인과 도리언 그레이의 관계의 불균형성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남성인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자기중심성' 혹은 '나르시시즘'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피는 다음에서 보듯이 모든 판단과 사고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인물이며, 글쓰기의 대상이 타인들이나 외부적 환경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점에서 또한 나르시시즘적인 경향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 제임스 더피는 체플리조드(Chapelizod)에서 살았는데. . . 왜냐하면 더블린의 다른 근교들이 천박하고. . . 겉만 번지르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 . 그는 이상한 **자서전적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 . . **자기 자신**에 관한 짧은 문장을 3인칭 주어로 과거시제로 서술하곤 했다. . . 그는 거지들에게 자선을 베푼 적이 결코 없었다. . . **그는 친구도 동료도 교회도 신념도 없었다**. . . 그는 **다른 사람과 친교없이** 정신적인 삶을 살았다. (*D* 107-9, 필자 강조)

마빈 매가라네르(Marvin Magalaner)가 지적하듯이 "자기 스스로 만든 질서 정연한 삶 속에서 자신의 정신과 감정의 지배자로 . . . 혼자 살아가는 자기 충족적인 존재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는"(98) 더피는 위에서 나타나듯이, 더블린 사회를 "상스럽거나 겉치레뿐"이라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그는 "친구나 종교도 없이" 다른 사람과 전혀 "친교가 없는" 철저하게 고립된 생활을 영위한다. 또한 그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연민도 없다. 이러한 그의 성향은 시니코 부인과의 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그녀와의 소통이 깊어지려는 지점에서 그를 제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때때로 그는 **자기 자신이 그의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 . 그가 그의 이야기상대의 열정적인 본성을 그에게 점점 더 자신에게 가깝게 함에 따라 그는 이상한 비인칭적인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는 그 목소리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목소리는 영혼의 치유할 수 없는 외로움을 고집하는 목소리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줄 수 없다.** 그 목소리는 말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다라고**. (*D* 111, 필자 강조)

다른 사람과의 교감이 결국은 자신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더피는 시니코 부인과 자신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영혼의 고독"을 지켜야한다는 자기중심적인 방어본능기제가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항상 의식하고 있는" 더피가 드러내는, "자기 자신"이나 "자아"에 대한 강한 집착은 현대인의 보편적 특성이기는 하다. 그러나, 더피의 경우는 그 정도가 지나치게 극단적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그 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며, 그 세계에서 그를 끌어내는 역할을 했던 시니코 부인과의 관계마저도 단절하게 만든다.

한편으로 "나르시서스 우화가 전경에 배치되어"(Craft 114) 있는 『도리언 그

레의 초상』의 도리언은 더피보다 더 강한 나르시시즘적 경향을 드러낸다. 여기서 나르시시즘에 대한 프로이트의 규정을 살펴보면, "인간은 두 개의 성적 대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하나는 그 자신"(Freud 88)이다.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면 나르시시즘적 성향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발현된다.

> 사람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사랑할 지도 모른다:—
> (1) 나르시시즘적인 유형에 따르면:
> (a) 현재 그 자신인 것 (예를 들면 그 자신),
> (b) 과거에 그 자신이었던 것,
> (c) 그 자신이 되고 싶은 것,
> (d) 과거에 한 때 그 자신인 것의 일부였던 어떤 사람. (Freud 90)

위에서 보는 것처럼, 프로이트는 '사람'(person)'이라는 남성, 여성 모두를 지칭하는 통성 명사를 사용하여, 사람의 사랑 가능성을 말하면서 나르시시즘적 유형을 '그 자신'(himself)을 사랑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나르시시즘에서 애초부터 여성이 배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르시시즘 성향을 드러내는 남성 인물의 의식 속에는 여성이라는 타자가 배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나르시시즘은 극단적인 남성중심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위의 분석틀을 도리언 그레이에게 적용시켜보면, 자신의 젊은 시절의 초상화와 현재의 거울 속의 자신 속의 모습에 집착하는 그는 나르시시즘 유형의 (a)와 (b) 형에 해당하며, 헨리 워튼(Henry Wotten)에 대한 그의 집착은 유형 (c)에 해당한다. 즉, 도리언 그레이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즘 성향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그의 의식 속에 시빌 베인이라는 여성 타자가 들어갈 자리가 애초부터 없었음을 드러낸다. 이것은 잠깐 등장했다가 자살로 사라지는 시빌 베일이 다른 남성 인물들인 헨리워튼이나 바질 헬워드(Basil Hallward)에 비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의 전체 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준다.[5] 도리언 그레이의 이러한 극단적인 나르시시즘적 성향, 혹은 남성 중심적인 생각은 시빌을 너무 심하게 대했다고 자책하는 그의 편지 쓰기 행위마저도, 시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행위로 만든다.

5) 즉, 특히 비키 마페이는 바질 헬워드이 도리언 그레이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헨리워튼 경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즉, 그들이 도리언의 "부모역할"(Maffey 199)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텍스트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서 여성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마침내, 그는 탁자로 가서 **그가 사랑했었던** 소녀에게 열정적인 편지를 썼다. 그녀에게 용서를 탄원하고 그 자신의 광기를 비난하면서. 그는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거친 단어들로** 페이지들을 채웠다. **자기 비난에는 일종의 사치스러움**이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난할 때, 다른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우리에게 용서를 주는 것은 성직자가 아니라 **고해행위**인 것이다. (*PDG* 100, 필자 강조)

도리언이 시빌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달라져서 그녀에게 사과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혹은 그보다도 스스로 자신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이 느끼는 슬픔이나 고통을 향유하는 감정의 "사치"를 누리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각각의 묘사는 도리언 자신과 그의 몸으로 귀결"(Lesjak 185)된다. 결국, 도리언의 이러한 자기중심성과 나르시시즘은 자신이 사랑했다고 공언했던 시빌을 자살로 이끄는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동한다.

2.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과의 만남: 삶의 결여된 측면에 대한 자각의 계기

시니코 부인이 더피를 만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시빌 베인이 도리언 그레이의 열렬한 구애를 받는 과정에서 그녀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물론 결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 남성 인물들과의 만남이 이들을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끄는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그녀들의 삶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녀들의 삶에 결여 되어 있는 측면을 일깨우고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그 결핍을 메꿀 수 있는 기대에 부풀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더피를 만나기 전에 시니코 부인은, 그녀를 "자신의 즐거움의 화랑에서 완전히 배제하고"(*D* 110) 집을 자주 비우는 상선의 선장인 남편 시니코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만약 더피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 생활을 그럭저럭 이어 나갈 수도 있었다. 그 이유는 더피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과 소외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더피를 만나고 헤어지는 경험을

하고 난 이후인 죽기 전 2년 전부터 그녀가 술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시니코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D* 115).

더피와의 만남은 비록 그녀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정도이기는 했지만, 그가 진실한 고해자 역할을 해주었고, 또 거의 정기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장이라는 직업적 특수성이 암시하듯이 실질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부재하는" 남편의 자리를 부분적으로 채워줌으로써 그녀의 소외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해 주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지금까지는 누려보지 못했던 누군가와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 그들은 항상 저녁에 만났고, 그들이 **함께 산책**하는 길을 가장 조용한 지역을 선택했다. . . 남편은 종종 집을 멀리 떠나 있었고 . . . 조금씩 조금씩 **그는 자신의 생각들을 그녀의 생각과 섞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책을 빌려주었고, 그녀에게 생각을 제공했으며, **그의 지적인 삶을 그녀와 공유했다**. . . 그들의 고립과 조용히 그들의 귀에서 진동하고 있는 음악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D* 110-11, 필자 강조)

그녀와 더피의 만남의 횟수가 증가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었으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각이 서로 얽히고" 그녀는 자신의 소소한 삶을 조금씩 풀어 놓을 대상이 생겼으며, 또한 그의 지적인 생각들을 "공유했으며," 그녀는 이전에 남편이나 딸과는 형성하지 못했던 타자와의 긴밀한 유대감을 더피와 형성하면서 그와 "결합되는" 느낌을 경험한다. 이러한 그녀의 내적 변화는 서서히 발전하여 마침내는 그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행위를 하게 만든다.

> 이들의 대화가 끝나게 된 것은 어느 날 밤에 일어났다. 그 날 밤 그녀는 보통 때와는 다른 흥분상태를 모든 면에서 드러낸 그녀는 그의 손을 열정적으로 잡아서 그녀의 뺨에 갖다 대었다. (*D* 111)

시니코 부인이 드러내는 "흥분된" 감정 상태는 그녀가 더피와 더욱 더 발전된 관계로의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것은 그녀로 하여금 대담하게 그와의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게 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그녀는 거의 비어 있는 쓸쓸한 음악회장에서 더피를 처음 만날 때의 가라앉은 모습과는 달리, 또 그와의 관계에서 항상 청자의 역할을 하던 수동적인 모

습과는 달리,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생동감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변모한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삼류배우로서의 초라한 자신의 현실적인 삶을 의식하지 못하고, 무대 위의 자신이 연기하는 여주인공들의 삶이 자신의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오던 시빌은 도리언의 열렬한 구애를 받고나서야 비로소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이 현실이 아니라 단지 무대 위의 연극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도리언의 구애는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현실에 대한 자각과 아울러 그러한 초라한 삶을 극복하게 해줄 완벽한 남자인 도리언과의 사랑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였고,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만든다.

> 내가 당신을 알기 전에, 연기가 나의 삶의 단하나의 현실이었어요.. 나는 극장 속에서만 살았어요.. 나는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밤에는 나는 로잘린느였고, 다른 날 밤에는 포오샤였어요.. 베아트리체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었지요.. . . 당신이 왔어요—나의 아름다운 사랑! 당신은 나의 영혼을 감옥에서 해방시켰어요.. . . 당신은 내가 사랑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만들어주셨어요.. (*PDG* 90)

이처럼 시빌은 도리언을 만나고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을 통해서, 이전에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세계가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무대 위에서의 연기가 자신의 삶의 현실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시빌 베인은 "자신의 영혼을 감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에 대해 도리언에게 감사한다. 이는 도리언이라는 현실 속의 한 남자의 사랑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삶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녀의 삶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는 지점이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시빌 베인과 시니코 부인 두 여성 인물들은 각각 더피와 도리언이라는 남성 인물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들을 만나기 전에 자신들의 삶에서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핍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 속에 부푸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니코 부인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위로 받으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더피를 보면서, 지금껏 그녀가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느낀다. 이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보여준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한편으로 시빌은 도리언의 적극적인 구애를 통해서 자신이 '현실'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삶이 단지 연극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무대 위의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와의 현실의 사랑을 위해 연극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게 된다, 이것은 시니코 부인과 시빌 베인이 더피와 도리언 그레이를 만나기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아이러니의 순간: 남성인물들의 일방적인 관계 단절

그런데, 두 여성 인물들이 각자의 상대 남성인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순간에 아이러니하게도 남성인물들은 이들 여성 인물들을 저버린다. 더피는 시니코 부인이 자신에게 그녀의 열렬한 감정을 표출한 이후에, 그녀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다. 한편으로 도리언 그레이는 시빌 베인이 이제 사랑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돌아와 그와의 사랑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에 그녀를 버린다.

우선 시니코 부인과 더피의 관계 단절의 순간을 살펴보면, 그에 대한 시니코 부인의 감정이 강렬해져서 그녀가 그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대는 순간에 그는 당혹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에게 일방적으로 이별통고를 한다.

> 더피는 너무나도 놀랐다. 그의 말에 대한 그녀의 해석은 그를 각성시켰다. 그는 일주일 동안 그녀를 만나지 않았고 그는 그녀에게 만남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 . **그들은 그들의 교제를 단절하는 것에 동의했다**. 모든 유대는 슬픔의 유대일 뿐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들이 공원에서 나왔을 때 침묵 속에서 전차를 향해 걸었다. 그러나 거기서 그녀가 너무나 격렬하게 몸을 떨었기 때문에 그녀 편에서 또 한 번 무너질 것이 두려워서 더피는 재빨리 작별인사를 하고 그녀를 떠났다. (*D* 111-12, 필자 강조)

더피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한"(Conboy 411) 시니코 부인의 행동을 용인하지 못하며, 결국 그녀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다. 여기서, 그들이 "교제를 단절하기로 동의했다"고 진술되어 있지만, 이것은 더피의 일방적인 주장을

시니코 부인이 받아들여준 것이지, 그녀가 자발적으로 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말을 하는 주체는 오직 더피뿐이라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며, 특히 시니코 부인이 드러내는 격렬한 몸의 떨림은 그와의 관계 단절에서 느끼는 그녀의 상실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더피는 단호하게 그녀가 "욕망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Conboy 411) 이는 타인의 욕망을 특히, 여성 주체의 욕망을 허용할 수 없는 더피의 남성 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 성향을 반영한다. 시니코 부인은 거의 집을 비우는 남편과는 달리 자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더피와의 만남을 통해, 이전의 소외된 삶과는 다른 삶을 경험한다. 여기서 그녀는 남녀 관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지만, 그녀의 욕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더피는 그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가차 없이 관계를 단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도리언 그레이 역시 시빌 베인이 현실 속의 자신과 자신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녀를 버린다.

> "나는 느끼지 못하는 열정을 흉내 낼 수는 있지만 **나를 불태우는 열정을 흉내 낼 수는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상태를 연기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될 것이에요. **당신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만들어주었어요.**"
>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얼굴을 돌렸다. "당신은 **나의 사랑을** 죽였소." 그녀는 의아심에 차서 그를 바라보고서 웃었다. . . 그녀는 그에게 다가와서 그녀의 작은 손가락들로 그의 머리를 쳤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그녀의 입술로 가져갔다. 그는 그것들을 뿌리쳤다. . . "당신은 **나의 사랑을** 죽였어. 당신은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곤 했었지. 이제 당신은 **나의 호기심**조차 자극하지 못해. . . 나는 당신이 멋지고, 위대한 시인의 꿈들을 실현하고, 예술의 그림자들에 형태와 본질을 주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은 그것을 모두 버려버렸어. . . 당신은 **나의 삶의 낭만을** 망쳤어. 당신의 예술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당신은 무엇일까? (고작해야) 예쁜 얼굴을 가진 삼류 배우일 뿐이야." (*DG* 90-91, 필자 강조)

여기서 시빌이 이제 사랑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사랑을 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순간에 도리언은 "그녀에게서 고개를 돌리며" 그녀의 손길을 "뿌리친다."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이 그녀를 현실로 돌아오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 순간에, 그녀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인 도리언은 그녀를 부정하는 아이러니

한 상황이 된다. 여기서 도리언의 말은 그가 사랑한 대상이 현실 속의 "삼류 배우"인 시빌 베인이 아니라, 그녀가 연기하는 동안에 그녀가 보여주는 허상적 이미지들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사랑을 죽여 버렸다"라는 구절과 "너는 나의 인생의 로맨스를 망쳐버렸다"라는 말은 그가 시빌을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그는 '시빌 베인'과 '자신의 사랑'이나 '자신의 로맨스'와 분리시키는 철저한 자기중심성을 드러낸다. 결국 시빌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하나의 대상으로 그녀를 사랑한 것이었고, 그녀가 그의 그러한 환상을 채워주는 것을 거부하는 순간, 더 이상 그녀는 그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그를 가장 간절히 원하는 그 순간에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버릴 수 있는데,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이지 그녀의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남성인물들은 자신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독립된 욕망을 지닌 동등한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녀들을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투사시키는 수동적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들이 그들을 간절히 원하는 그 순간에 그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그녀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주된 동인이 된다. 이들의 자기중심성과 나르시시즘은 여성인물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미 그들에게 모든 것을 걸어버린 상대 여성들을 파멸로 이끄는 요소이다.

그러나 이들 여성 인물들과의 단절은 그들이 타자와의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도리언은 자신이 숭배하는 헨리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와도 소통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며, 헨리와의 관계 역시 상호 소통의 관계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헨리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일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이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공언했던, 시빌과의 관계마저도 그녀가 제대로 된 사랑과 상호 소통을 요구하는 순간에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타자와의 소통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다. 이것은 더피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는 어느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다가 시니코 부인을 만나면서 영혼의 고양상태를 경험한다. 하지만, 그녀가 좀 더 진전된 관계를 원하는 그 순간에 그녀와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타인과의 상호 소통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거한다.

4. 두 여성 인물의 죽음이 지니는 양가성

시니코 부인의 죽음과 시빌 베인의 죽음의 공통적인 요소가운데 하나는 이 두 사람 모두 자살을 선택한 것이지만, 사회에서 이들의 죽음을 다루는 방식은 단순 사고사로 다루어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이들의 낮은 사회적 신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들의 죽음은 기껏해야 삼류 배우의 "안타까운 사고사"일 뿐이거나, 술에 취한 한 하류층의 여성이 건널목을 건너다가 열차에 치여 죽은 흔해 빠진 "애석한 사건"일 뿐인 것이다.

먼저 시니코 부인의 죽음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자.

> 시드니 가에서의 한 부인의 죽음
> 한 가지 가슴 아픈 사건
> 오늘 더블린 시립 병원에서 레베레트(Mr. Leverett)를 대신해서 부검시관이 어제 저녁 시드니 가 역에서 죽은 마흔 세 살의 에밀리 시니코 부인에 대한 사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증거에 따르면, 고인이 된 시니코 부인은 선로를 건너다가 킹스타운발 열시 완행열차에 치여 머리와 오른쪽 측면에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D* 113)

객관성을 가장하고 있는 이 무미건조한 신문기사는 사실상, 시니코부인이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가지 가슴 아픈 사건"이라는 기사의 제목과는 정반대로 그녀의 죽음은 무덤덤하게 치부되는 술 취한 한 유부녀가 자신의 부주의로 당한 열차사고일 뿐이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사회가 보이는 냉담함과 무관심에 덧붙여서 그녀를 더욱더 초라하게 외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그녀의 죽음에 대한 남편과 딸의 진술의 내용이다.

> 시니코 선장은 . . . 사고 당시에 더블린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로테르담에서 당일 날 아침에야 도착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22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왔으며 그의 아내가 다소 무절제한 삶을 살기 시작한 지난 2년 전까지는 행복하게 살아왔다. . . 메리 시니코양은 최근에 그녀의 어머니가 밤에 술을 사기 위해서 외출해왔다고 진술했다. . . 그녀는 그 사고가 일어나고 한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었다고 한다. (*D* 114-5)

시니코는 사고가 나던 날에 시니코와 그녀의 딸 모두가 집에 '부재'했었다는 진술은 가정 내에서의 시니코 부인의 '소외'와 '외로움'을 단적으로 드러내며, 그녀와의 22년간의 결혼 생활동안 그들이 행복했었다라는 시니코의 진술 역시, 시니코와 시니코 부인의 '소통의 단절'을 드러낸다. 특히 두 사람 모두 그녀가 왜 술을 마셨는지의 그 원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가정 내에서의 시니코 부인의 심한 고립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결국 "그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에게도 돌려지지 않으며"(*D* 115) 이제 그녀는 죽었고, 그녀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누구하나 진정으로 애석해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 때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그녀의 남편도 딸도 아닌 바로 더피라는 점은 아이러니한 측면이자 동시에 신문기사가 보도하는 무수한 무의미한 죽음들로부터 그녀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기자들의 그 진부한 구절들, 무의미한 동정의 표현들"들을 포함한 그녀의 죽음에 대한 '전체적인 서사'에 역겨움을 느낀다(ibid). 동시에 시니코 부인의 의지의 박약함과 어리석은 선택에 화를 내며, 그녀의 죽음이 자신마저 "타락시켰다"는 사실에 분노한다(ibid).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그녀의 죽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으면서 자신이 그녀를 떠난 뒤에 그녀가 느꼈을 외로움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 그는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 즉, 그녀가 존재하는 것을 중지했다는 사실, 그래서 **그녀가 하나의 기억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가버렸기 때문에 그는 그녀의 삶이 정말로 외로웠음에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그 방에 혼자서 몇 밤이고 혼자 앉은 채로 말이다. 그가 죽어서 존재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의 기억—만일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누구라도 있다면—이 되기 전까지는 그의 삶도 역시 외로울 것이다. . . 그는 왜 그녀에게 죽음을 선고했던 것일까? . . . 한 사람이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그는 그녀의 삶과 행복을 부정했다; 그는 그녀에게 수치와 치욕적인 죽음을 선고했다. . . **어느 누구도 그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삶의 축제에서 추방되었다. . . 그는 다시 귀를 기울였다: 완벽하게 고요했다. **그는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느꼈다**. (*D* 116-17, 필자 강조)

결국, 더피는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후이야, 그녀를 거부한 자신 때문에 시니코 부인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더 나아가, 그녀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자신 역시 삶의 영역에

서 추방되었다는 사실은 인식하게 된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시니코 부인이 더피를 만나면서 그녀의 삶에 결핍된 요소를 깨달았던 것처럼, 그녀의 죽음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결핍된 요소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니코 부인의 자살은 그녀의 죽음을 곱씹는(신문기사를 여러 번 읽는 행위) 더피에 의해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신문기사에 대한 그의 분노의 표출이나, 더 나아가 그가 그녀가 느꼈을 외로움을 깨닫는 과정, 그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그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에 대한 자각, 그리고 그녀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고립된 외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것은 더피로 하여금 그녀와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을 동반하는 것이며, 그녀의 죽음에 대한 신문기사가 전달하는 통속적이고 진부한 해석을 전복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시니코 부인은 죽음을 통해서 그녀가 "살아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Conboy 412)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시니코 부인에 대한 더피의 반응은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고 점점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그에 대한 그녀의 의미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그녀가 그에게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가 그녀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그녀의 적극적인 삶의 표현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과정은, 동시에 더피가 자신의 삶에 대한 재평가과정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더피 자신이 "그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사랑을 차단해왔던 한 남자의 황량한 삶에 종지부를 찍는 것"(Malgalaner 98)이며, 그에게 변화된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더피는 의식적으로는 자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신만이 영역 속에서 자신이 만든 질서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방의 "빨간색 양탄자"와 "워즈워드 시집," 그리고 "은행을 털만한 일이 생기면 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D* 107)이나, 또 무엇보다도 시니코 부인이 무심코 던진 혼잣말을 자신과의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D* 109), 또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가 천상의 상태로 전화되는 것을 느끼는 것 등등은, 그 역시 무의식속에서는 타자와의

소통을 갈망하는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치들이다. 비록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중심적 자아가 너무 강해서 더피 스스로가 미처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지만, 그와 그녀의 삶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든 시니코 부인의 죽음은 그의 무의식의 심층에 자리 잡고 있었던 타인과의 소통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깨닫게 만들어주었던 것이다. 이 에피소드가 열린 결말로 끝나면서 더피의 이후 삶의 과정은 독자의 상상에 맡겨놓지만,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다른 인식을 한 이상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시니코 부인의 죽음은 자기중심성과 나르시시즘에 빠진 더피가 그 한계에서 빠져 나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을 열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시빌의 죽음 역시 시니코 부인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신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 한 여 배우의 죽음에 대한 사인 규명-오늘 아침, 혹스톤 가(Hoxton Road)에 있는 벨 타베른(Bell Tavern)에서 지역 검시관인 댄비(Danby)씨에 의해서 최근에 홀본(Hoborn)의 로얄 극단에 의해 고용된 젊은 여배우인 시빌 베인의 시체에 대한 사인 규명 조사가 실시되었다. 사인은 불운한 사고인 것으로 다시한번 밝혀졌다.. (사람들이) 심심한 위로의 말들은 고인의 어머니에게 표현하였다. (*DG* 127)

삼류 배우인 시빌의 죽음 역시 사회적으로는 판에 박힌 상투적인 문구로 처리된다. 시니코 부인의 죽음에 대한 묘사와 거의 유사한 문체와 내용을 드러나는데, "사인규명검사"(inquest)나 "검시관"(Coroner) 그리고 "심심한 위로"(considerable sympathy) 그리고 "불운한 사고"(misadventure)등등은 그 좋은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신문 기사 역시 시빌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그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못한 채, 단순 사고사로 그녀의 죽음을 처리할 뿐이다.

하지만 여기서 시빌 베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혼신의 열정을 다해서 연기했던 무대 위의 삶의 그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현실의 삶에 몰입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녀의 예술적 삶은 끝났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녀가 자신의 삶을 중지시키는 순간, 그녀는 목숨과도 바꾼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연기했던 영원한 사랑의 상징 '줄리엣'이 되는 변화를 겪

는다. 비록, 도리언에 의해서 그녀의 삶의 의미가 재조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도리언의 분신이기도 하며, 그의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하고 있는 헨리 워튼에 의해서 "그녀의 죽음은 내게는 상당히 아름다운 무엇인가가 있다"(*DG* 106)라고 평가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뿐만 아니라, 도리언 역시 더피처럼 시빌의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 그녀를 자신에게서 밀어내려고만 했던 모습에서 달라진 태도를 드러낸다.

> "나는 시빌 베인을 살해한 것이야," 라고 도리언 그레이가 말했다. . . "마치 칼로 그녀의 작은 목을 자른 것처럼 확실하게 내가 그녀를 죽인 것이라고." (*PDG* 102)

그녀의 죽음을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자신이 그녀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도리언이 인식하게 되는 것은 타자인 그녀와의 거리를 좁히는 과정이고, 이것은 바로 시빌의 자살이 갖는 힘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생전의 시빌은 비록 삼류 연극 배우에 지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사랑의 대상인 도리언게서 버림을 받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었다. 이것은 비극적이고 아이러니한 선택이었지만, 더 이상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하는 것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이후이기에 그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함으로써 자신을 전면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비록 자신이 새롭게 인식한 삶을 완성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해서 자신의 사랑을 각인시킨 시빌 베인은 어쩌면 도리언보다도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빌 베인의 죽음이 도리언에게 미치는 영향이 시니코의 죽음이 더피에게 주는 파장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 「한 가지 가슴 아픈 사건」과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의 전개상의 차이를 나타난다. 시니코 부인의 죽음은 더피로 하여금 타자인 그녀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오직 자기만의 굳건한 틀에서 갇혀 있는 그를 그 틀 속에서 벗어나게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자신이 만든 자신만의 틀 안에 신을 속박해왔던 더피가 자신의 삶과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후의 더피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반면에 시빌 베인의 죽음은 도리언 그레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실패한

다. 결국 도리언 그레이의 자기중심성과 나르시시즘은 더욱 더 공고한 방향을 진행된다. 그래서 그의 외면적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지만, 초상의 모습이 일그러지는 것을 통해 그의 영혼이 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도리언의 무의식을 반영하는 그의 거울 역할을 하고 있는 그의 초상이 시빌이 죽고 나서 일그러진 것은 분명히 이 시점에서 그의 영혼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을 암시한다. 이후 그는 "점차로 악한 행위들에 몰두하게 되며, 살인에서 그의 악행은 정점에 달하게 되며" 결국 그는 "스스로를 살해하는" 지점에서 그 악행의 정점에 이르게 된다(Ferguson 471).

이렇게 그녀들의 죽음이 주는 파장의 정도에 있어서 더피와 도리언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즉, 더피는 그녀의 외로움을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자신의 처지를 인식한다. 즉, 타인을 이해하는 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니코 부인의 죽음은 더피와의 관계에서의 그녀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피의 삶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 가지 가슴 아픈 사건"의 전반부에서 더피가 죽음에 대해 표했던 기본적인 경외심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리언에게 시빌 베인의 죽음은 헨리의 영향 때문에 그 순간만의 경험으로 축소되고 만다. 도리언은 그녀의 죽음을 통해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해내는데 실패한다고 할 수 있다. 시빌 베일은 자살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과 존엄성을 지켜냈지만, 그녀의 죽음이라는 강력한 계기가 있었음에도 타자에 대한 이해에 실패한 도리언은 결국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인식에도 실패하고 끝내는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는 "한 가지 가슴 아픈 사건"은 더피의 변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은 반면에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서 도리언은 파국을 맞는 모습으로 종결된다. 이 때, 그가 그녀에게 했던 말, "얼굴만 예쁜 삼류배우"라는 말은 결국, 부메랑처럼 "외면은 아름답지만, 영혼은 썩어 있는" 말로 변형되어 그에게 다시 돌아온다. 이 때, 자신의 초상화를 칼로 찌르는 행위는 자신의 추한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즉, "그의 영혼을 비추는 역할로서의 초상화"(Craft 115)가 이제 "시들고, 주름진, 그리고 혐오스러운 얼굴"(*PDG* 224)을 그의 육체인 시신에게 돌려준 것이다.

5. 마무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니코 부인과 시빌 베인의 죽음은 공통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그녀들은 상대 남성 인물들로 인해서 그 전까지의 자신들의 삶에 결핍된 요소들을 인식하게 되며 그들을 통해 그 결핍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들의 그 꿈은 남성 인물들로부터 일방적인 관계 단절을 통보받으면서 절망에 빠진 두 여성 인물들은 모두 '자살'을 통해 자신의 삶은 마감함으로써 산산히 부서진다. 이 때, 도리언과 더피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즘적 성향은 시빌 베인이나 시니코 부인의 감정 상태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자신의 입장에서 그녀들의 '가치'가 소멸했을 때, 단호하게 관계를 단절하는 냉담한 면모를 드러낸다. 그래서 그녀들은 남성 인물들을 통해서 삶의 중요한 측면을 재발견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들이 선택한 삶의 부정의 방식인 자살은 또한 역설적으로 이들의 삶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역할을 하며, 남성 인물들은 그녀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깊게 성찰하게 하는 계기를 경험한다. 이를 통해, 살아 있었을 때에는 남성 인물들에게 자신들의 투사된 욕망의 대상에 불과했던 그녀들이 죽음 이후에는 그들로부터 다른 의미를 획득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들의 죽음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낮은 사회적 위치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당시의 사회 속에서 하류층 여성에 지나지 않는 시니코 부인이나 삼류 여배우인 시빌 베인의 죽음이 가지는 사회적 파장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니코 부인의 죽음은 기혼 여성에게 가정이라는 엄격한 틀을 요구하면서도 남편이 그녀를 소외시킬 때, 그녀의 육체적 욕망은 그 출구를 찾을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며, 시빌 베인의 죽음은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투사하는 수동적인 대상화를 거부할 때 그 관계자체가 단절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여성 인물의 죽음이 상대 남성 인물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시니코 부인의 죽음은 더피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그가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자신의 인생관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드는 반면에, 시빌 베인의 죽음은 도리언 그레이로 하여금 그녀의 죽음에 대한 자책을 하게 만들고 헨리 워튼에 의해서는 거의 '줄리엣'이 가지는 의미를 획득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의 파장을 도리언에게 미치치는 못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임스 조이스와 오스카 와일드는 공통적으로, 극단적인 자기중심성과 나르시시즘에 경도된 남성인물이 여성인물들을 수동적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자신들의 욕망을 투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여성인물들을 자살로 몰아가고, 마침내 그녀들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삶에 대한 재인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 측면들을 통해서 남성 중심주의에서 기인하는 폐해는 결국 남성 자신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외국어대)

인용문헌

Cohen, Ed. “Writing Gone Wilde: Homoerotic Desire in the Closet of Representation.” *PMLA* 102.5 (1987): 801-13.

Conboy, Sheila C. “Exhibition and Inhibition: The Body Scene in *Dubliners*.”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37.4 (1991): 405-19.

Craft, Christopher. “Come See About Me: Enchantment of the Double in *The Picture of Dorian Gray*.” *Representations* 91.1 (2005): 109-36.

Felski, Rita. “The Counterdiscourse of the Feminine in Three Texts by Wilde, Huysmans, and Sacher-Masoch.” *PMLA* 106.5 (1991): 1094-1105.

Ferguson, Christine. “Decadence as Scientific Fulfillment.” *PMLA* 117.3 (2002): 465-78.

Freud, Sigmund.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14. Ed. & Trans. James Strachey. London: Hogarth, 1975.

Joyce, Jame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 Scholes, Robert & Litz, A. Walton. New York: Penguin, 1979.

Lane, Christopher. “Framing Fears, Reading Designs: The Homosexual Art of Painting in James, Wilde, and Beerbohm.” *ELH* 61.4 (1994): 923-54.

Lesjak, Carolyn. “Utopia, Use, and the Everyday: Oscar Wilde and a New Economy of Pleasure.” *ELH* 67.1 (2000): 179-204.

Maffey, Vicki. “Pere-Version and Im-Mere-sion: Idealized Corruption in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man* and *The Picture of Dorian Gray*.” *James Joyce Quarterly* 31 (1994): 189-206.

Magalaner, Marvin. “Joyce, Nietzsche, and Hauptmann in James Joyce’s ‘A Painful Case’.” *PMLA* 68.1 (1953): 95-102.

Wilde, Oscar. *The Picture of Dorian Gray*. California: Norilana Books, 2007.

Abstract

The Common Meaning of Two Women's Suicide: Mrs. Sinico versus Miss Sybil Vane

Young-shim Lee

Mrs. Sinico of "A Painful case" and Sybil Vane of *The Picture of Dorian Gray* have several common elements. To begin with, Mrs. Sinico and Sybil Vane respectively commits suicide after their partner's unexpected declaration of cutting off their relationship, which suggests that two male characters, Duffy and Dorian Gray, are responsible for two female character's tragic death. Especially two male characters' self-centeredness or narcissistic inclination is the main reason of the failure of their relationship and those two women's death.

The fact that Mr. Duffy plays the role of "a teller" and Mrs. Sinico assumes the role of "a listener" emphasizes that their relationship is problematic unequal one. Meanwhile, Dorian Gray confines Sybil Vane within the role of an actress who plays the various beautiful heroines such as Juliet, Imogen, and Rosalind and he does not allow her to return to her real life and complete her real love with him.

Secondly, two female characters commonly acquire new positive meaning from each one's male partner after their deaths. Mrs. Sinico's death causes Mr. Duffy who denied her sexual desire for him to understand her loneliness and, at the same time, to recognize his own loneliness derived from her absence. And Sybil Vane's suicide helps her to become the true 'Juliet' and makes her love for Dorian immortal one.

However, there exists difference between Dorian Gray's from Mr. Duffy's attitude toward their partner's death. While the latter re-examines his whole life including his relationship with Mrs. Sinico after knowing her death, the former does not look back his life after being informed of Sybil vane's death. That is, Mrs.

Sinico's death makes Mr. Duffy understand not only her life but also his own situation, however, Sybil Vane's death does not influence on Dorian Gray's life significantly.

In conclusion, James Joyce and Oscar Wilde commonly focus on how the male character who has the extreme self-centered tendency or narcissism projects his own desire toward the female character, denies her own desire, causes her to commit suicide, and rediscover her true meaning to him after her death.

■ Key words : masculine desire, narcissism, self-recognition, suicide, death
(남성적 욕망, 나르시시즘, 자기 인식, 자살, 죽음)

논문접수: 2011년 5월 21일
논문심사: 2011년 6월 11일
게재확정: 2011년 6월 13일